



EU

프랑스, 네덜란드 AI백신 허용키로

EU사무국(EC)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가금류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 단, 이번 백신시행은 특정지역에 한해서 일부가금류에만 실시되며, 엄격한 감시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감지되지 못했던 발병 확인여부와 세심한 예찰활동을 위해 이동제한과 백신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는 AI에 걸린 가금류와 틀림없이 구분되어 질 수 있도록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와 이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일련의 조건들이 수반되며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EU국가 중 가장 많은 가금생산물 생산국가인 프랑스는 3개 지역에서 90만수의 오리과 거위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며, 네덜란드는 3백만수의 애완가금류와 자유지역내 산란계5백만수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WP).

미 국

05년도 브로일러기업 랭킹, 상위 40사의 처리수수 1% 증가

미국의 가금잡지 '폴트리 USA' 06년 1월호에 게재된 브로일러기업 랭킹에 의하면 05년의 미국의 대형 브로일러기업 40사의 주당 처리수수는 전년비 약 1% 증가한 1억7,035만수, 동 처리중량은 동 약 2% 증가한 9억1,483파운드(약 415,333톤)이었다.

1수당 생체중은 5.4파운드(약2.5kg)로 주당 RTC(가식내장부 도체) 총 생산량은 동 약1% 증가한 6억9,477파운드(약 315,426톤)이었다.

작년은 세계 각지에서 AI가 발생해 수출시장 등을 냉각시켰음에도 미국의 브로일러 생산은 근수년 계속 확대경향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40사 중 약 7할에서 주당 RTC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특히 랭킹 2위인 Pilgrim Brand는 동 약 4% 증가한 1억 1,300만 파운드(약 51,302톤)이었다. 한편 40사 중 3사에서 주당 RTC생산량이 전년보다도 감소하고, 랭킹 1위인 Tyson Foods는 동 약 1% 감소한 1억5,000파운드(약 68,100톤)이었다.

랭킹 4위인 Padu Farms도 주당 RTC생산량이 전년보다도 감소되었지만 2009년까지 1억4,600만 달러를 들여 Georgia주에 가공시설

을 신설해 전체의 처리량을 늘릴 예정이다. 상위 랭킹 10개사의 주당 RTC생산량은 5억259만 파운드(약 228,176톤)로 전년에 비해 약 0.3% 감소했다. 40사 합계의 주당 RTC총생산량에 대해 상위 3개사에서 46.8%, 상위 5개사에서 57.0%, 상위 10개사에서 72.3%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몇 회사에서도 설비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후의 순위 변동 등이 주목된다(鷄鳴新聞).

일 본

06년도 블로일러 출하계획 수수 5억9천만 수로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부 식육계란과는 3월 10일, 농수성 강당에서 정국블로일러수급조정회의와 전국계란수급연락회의를 열었다. 06년도의 블로일러 출하계획수수는 5억9,735만5천 수(전년도 비 1.9% 증가)라고 보고하고, 수급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의 영향에 의한 수요동향을 잘 확인할 것과 외식 가공분야에서 국산계육이 선호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鷄鳴新聞).

계란 얹은 밥 붐

밥에 신선계란을 얹고, 간장을 뿌린 간단한 '계란 얹은 밥'이 작년부터 붐을 일으키고 있다. 전용 간장이 히트 친 이후 시마네현에서는 심포지움도 열렸다. 초의 계기는 시마네현 운난시의 제3섹터가 02년부터 팔기 시작한 '계란 얹은 밥 전용 간장'이었다. 인터넷이나 소문 등으로 평판이 퍼져 지금까지 45만개가 팔리는 대히트가 되고 있다. 지금도 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선전이나 취

재에 대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히트를 친 운난시에서는 작년 10월, 계란 얹은 밥의 소재인 쌀, 계란, 간장을 재검토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려고 '계란 얹은 밥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250명의 참가자들은 전래의 방법으로 지은 밥에 신선계란을 얹어 먹으며 즐겼다(JA NEWS).

동남아국제성장연합회(BEBC)

식용육사업 착수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 국제성장연합회 BEBC는 올해 식용육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에 참석한 나라들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그들은 최근 Davao에서 합작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선두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 BEBC사들로부터 생산된 닭고기의 판매를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AAG).

태 국

베다그로사 올해 7천만불 투자

베다그로사는 가공육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7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베다그로사는 두개의 신설 가공공장에 5,100만불, 나머지는 양돈장과 제분소 확장에 투입될 것이며, 일본의 협력사 또한 각각 연간 3만톤과 2만4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두개의 조리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두개의 신설공장들은 2007년도 후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최고경영자 Vanus Taepaisiphonges가 전했다(AAG).